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10.27.(금) 오전 10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10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10월 공론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가자 충돌, 항주 아시안 게임 등의 해외 뉴스, 국내 서울 강서 구청장 선거, 그리고 각종 정치와 경제, 사회 현안들을 빠짐없이 보도하였습니다. 생각해볼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북경 특파원 기사에서는 중국 상황을 발 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물을 결과적으로 relay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 언론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충실하게 홍보하는 수단입니다. CCTV 등은 중국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언론은 자국의 활기차고 긍정적이며 좋은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보도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공론장 형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언론과는 철학이 다릅니다. 따라서 중국 국영 언론의 녹취와 영상을 한국의 시청자에게 전달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상 취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리포트에서는 종종 text(한국 특파원 제작물)와 녹취 영상(현지 국영 언론 제작물)간에 온도차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과 시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시각으로 보기 위해 특별히 기사를 파견했다는 점에서 현지 제작물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지 제작물을 쓸 때는 사실관계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평가적, 전망적 내용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베이징 특파원도 그런 점 충분히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적하셨다시피 영상 취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전달을 하는 내용일지라도 영상이라든가 인터뷰 자체는 그런 걸 쓰지 못하고 중국 국영 TV의 공식적인 입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리포트를 하면서 아예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인터뷰 같은 것을 넣지 않고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특파원이 중화시킬 수 있는 멘트를 넣든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발언이 아니라 평가적이고 전망적인 발언은 중국 국영방송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10월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논란 보도, 다시 불붙는 '의대 증원' 갈등..."의사수 부족" vs "과잉 <전화연결 :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원장>, 찬반 양측의 전문가들 전화 연락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균형 잡힌 보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다만, 두 전문가가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전 세계 선진국 중 1등이라는 것이라고 찬성 의견자 김윤 교수가 주장한 거에 대해 반대 의견자 우봉식 원장은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책연구소 등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두 사람의 의견만 들어서선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패널의 중립성, 연합뉴스TV 패널들의 균형 잡힌 시각의 출연과 평론을 했으면 합니다. 10월 5일, 6일 등 뉴스포커스를 보면서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중립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 대표에 대한 편파적 옹호성 발언, 한쪽 당에 치우친 발언 등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이슈조차도 균형감이 없는 모순적 논리가 보였습니다. 주장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환경 감시기능입니다. 종편에서 나오는 패널들을 보면 그들의 입으로 각 정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를 보면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갈만한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있어서 지금보다 패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 스크롤 자막 한자 정정, 10월12일 19시 34분 뉴스프라임 김종성 리포트 '잇단 논란' 김행 불명예 낙마 여가부 '동요' 기사에서 스크롤 자막 한자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文化光'은 역사 속으로' 글월 文이 아니고 문 門자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연합뉴스TV 자막 오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의대 증원 문제는 찬반 양쪽의 주장이 많이 갈립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전문가 집단 중에서 기득권이 깨지지 않고 있는 집단은 의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변호사도 이미 로스쿨 생기면서 상당 부분 기득권이 깨진 상태고요. 국민 전체적인 보건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의대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필수 의료 인력 보강, 지역 의료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보도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에서 정리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만 수입을 비교하는 문제 특히 국제적인 비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서로 다르고 여건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의사 숫자가 모자라는 건 맞거든요.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너무 적은 게 맞기 때문에 수입이 1등이라고까지는 못해도 당연히 의사 숫자가 적으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패널의 중립성 문제는 저희가 항상 이게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패널을 1년에 한 두세 번 개편하면서 교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 극단의 주장을 펼치는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합니다. 극우적인 주장이라든가 아주 극좌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가급적인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청자들의 불만이라든가 항의가 많이 들어온 분이라든가 또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특히 정치 대담이 문제인데 항상 양쪽 주장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보수진영 진보진영 패널들을 모시잖아요. 근데 각 진영에서 대표성 얘기를 해요. 그 대표성이 어떻게 보면 각자 진영의 주류가 될 수가 있어요. 비주류가 나오면 대표성이 없다고 해당 진영에서는 주장을 하고 항의를 하는 거죠. 해당 진영의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을 출연시키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라든가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편 때마다 교체를 합니다.
- 스크롤 자막이라든가 리포트 자막은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 잘 보완은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다다를 이야기] "출발이 늦네요" 항의에 버스기사 "니가 뭔데 XXX야" 욕설·폭행, 전라북도 군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주행 버스가 사전 고지 없이 지연 출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다른 기사들과 수다를 떠느라 정시 출발을 하지 못했다는 게 승객들 주장인데, 버스 기사는 탑승 뒤 70대 승객이 출발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욕설을 하고 승객의 목살을 잡는 모습이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월권을 행사했던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으로 아마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도시다 보니 운전기사들의 소양교육, 버스회사의 배차관리, 승객서비스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버스회사의 실태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다 보니 누가 나서서 제보하기도 어려웠을 사건인데 승객 중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제보한 사건입니다. 불합리에 항의한 승객의 억울함을 잘 보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장의 재구성] '3,058명' 벽 깨질까?...의료계 '폭풍전야', 20년 가까이 동결됐던 의과대학 정원이 1천 명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가를 막기 위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입시부터 정원 1천명 이상 증가 계획을 예고하였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재이송 문제로 인한 응급환자 사망, 의사협 입장에선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피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다'라고 주장하는데, 의사협과 관련 부처 간 소통의 과정과 쌍방 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정원의 수와 적용시기 등이 정해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생략된 거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말씀해 주신 '다다를 이야기' 이거는 원래 저희가 유튜브를 개발해서 만든 디지털 콘텐츠고요. 버스 기사 건은 100만 뷰 이상 나왔을 겁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받아서 보도하기도 했고 이걸 만든 기자는 이번에 회사에서 상도 받았습시다. 제보가 워낙 좋기도 했고 또 잘

만들었더라고요. 칭찬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 현장의 재구성에서 이제 의대 정원 문제를 좀 다루는 게 내용이 빈약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장에 재구성이라든가 리포트 한 건 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대표적인 내용만 가지고 대비시키고 알기 쉽게 만들다 보니까 심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호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리포트 몇 개를 좀 모아서 심도 있게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방금 우리 허 위원님 의견주신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콘텐츠가 11일 됐는데 현재 192만 뷰네요.

▲ 김희중 위원

- 연합뉴스TV 「연중 기획」 뉴스 활성화 필요, 지난달 25일 연합뉴스TV에서는 '인구소멸 위기, 한국경제의 대응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경제포럼을 개최함. 이 포럼은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당면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자리에는 7기 시청자 위원도 함께 참석했는데, 참석자와 국민에게 '인구소멸'이라는 의제가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자리였음. 다만 아쉬움도 있었음. 경제포럼에서 발제된 의제(인구소멸) 관련 후속 뉴스가 지난 한 달간 탐사보도(뉴스프리즘, 9.30일자)와 단발성 리포트(10.1일자) 1건이 전부였음. 이는 연합뉴스TV가 '경제포럼'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를 제시했음에도 자사 '뉴스'에서는 뉴스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뉴스적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임. 뉴스도 미래를 뉴스로 만들어야 함. 사건 사고, 정치, 경제, 문화 같은 현실 뉴스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뉴스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함. 그간의 연합뉴스TV 경제포럼 주제를 살펴보니 대체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응하는 것들이었음. 연합뉴스TV 뉴스룸에서도 관련 의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후속 취재를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함. 한편 연합뉴스TV가 지향하는 경제 사회적 의제들이 여론이 되고 각계각층에서 제시한 해법들이 논의되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연중 기획보도'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봄.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연합뉴스TV가 밀고 있는 '연중 기획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앱을 통해 검색해 보니 지난 2018년 '아기는 우리 희망'한 건만이 검색될 만큼 연중 기획 뉴스 시리즈 제작에 인색해 보였음.(물론 '뉴스 프리즘'이 연중기획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음). 따라서 앞으로 연합뉴스TV가 제시하는 의제들이 연중기획 뉴스를 통해 국민과 정책 당국에 각인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램.

- 정규 뉴스에서 '서울 아텍스 2023 개막식' 중계한 이유는... , 지난 10.17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서울 아텍스 2023 개막식'을 내보냄. 연합뉴스TV에서는 그동안 관련 뉴스를 리포트만 해오다 올해는 개막식 전체를 중계하고 전문가 해설까지 앵커와 함께 진행함. 국내 방위산업 위상과 첨단무기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나, 다른 뉴스 송출을 중단하고 중계할 만큼 뉴스 가치가 큰지는 알기 어려웠음. 오히려 이번 '아텍스 2023'에 나온 국내 방위산업 위상과 첨단 무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취재해 여러 건으로 나눠 보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림.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지금까지 사실 캠페인이 별로 없었죠, 하루하루 그냥 리포트에 급급하다 보니까 어젠다 세팅이 잘 안 된 감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TV에서 하는 각종 포럼에서 이런저런 이슈를 저희가 발굴을 하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캠페인으로 연결시켜서 이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이번 인구 소멸 이 문제 물론 이걸 지방과도 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는 최근에 캠페인을 하나 시작했어요. 아기들의 모습, 가족의 화목한 모습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로부터 영상을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극복의 난관 중에 하나가 보육 문제거든요. 보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대안들을 좀 담은 제작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한 12월쯤에 저희 스페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캠페인성 어젠다 세팅도 저희가 좀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덱스 2023 개막식 중계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그림이 좋아서 보통 이런 것들 중계를 하면 저희가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안보 이슈가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남북 관계도 좋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나고 있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자주국방 의지라든가 안보 강화 의지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덱스 개막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저희만 생중계한 건 아니고요. YTN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금 길게 하긴 했죠. 덕분에 시청률은 잘 나왔고요.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10월11일 [연합뉴스] [단독] "청소년 마약 폭증에도...전문위 회의는 달랑 '두 번',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올 초 교육부가 마약 대책으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의 연합뉴스 단독 취재 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부와 교육부의 안일한 대책과 운영을 국민에게 알려 심판받게 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연합뉴스TV가 잘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을 마약 거점으로 삼으려는 국제범죄 조직으로 인하여 국내 마약 밀거래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올 초 교육부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약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되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의 활동 부재와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마약 예방교육 지원은 전무 한 상태이다. 정부와 각 부처의 각종 전문위원회들이 사회적인 이슈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졸속으로 설치가 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슈가 된 시점이 지나고 나면 형식상 운영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곳이 많다. 공영방송 연합뉴스TV가 이런 전문위원회들의 운영 실태를 집중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무 부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나 공공 단체가 무슨 이슈가 생기면 항상 TF도 만들고 전문위원회도 만들고 해가지고 보여주기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잘 운영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국민들 세금이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산하에 다른 전문위원회들 이런 운영 실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

- 10월 8일 뉴스 15'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 ... AI시대 디지털 질서 정립 관련 [뉴스 초점]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 진행자가 질문하고 장관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먼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질문하고 장관이 설명하는데 지난달 9월 25일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좋았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주요국의 AI 가이드 라인 등과 차이는 물론,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추구하는 가치,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생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 진행자가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매끄럽지 못한 질문 모습도 조금씩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질문 중간에 진행자가 뜬금없이 누리호 발사 성공 때 장관의 표정을 언급하며 그때 장관의 심정을 물어본 것은 다소 어색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1일 인터뷰를 10분 이상 진행하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 인터뷰 내용에 계속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시간 제약인지 인터뷰 마지막에는 급히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 늘 느끼는 얘기지만 사실 연합뉴스TV를 저희가 제가 주로 과학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과학 뉴스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찾기가 어려우면 이제 검색을 좀 해보거든요. 아까 이제 연중 기획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연중 계획을 떠나서 과학 뉴스는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연합뉴스TV에서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기술 과학 연구개발 주제를 넣고 검색을 해도 거의 몇 달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검색이 될 정도로 이렇게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제일 컸고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의 시청을 늘리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때문에 인정은 하면서도 조금 너무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과기부 장관 출연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나운서가 좀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나리오대로 질문 짜준 대로 그대로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다소 분위기가 안맞는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할 수도 없구요. 좀 더 매끄럽게 마무리하면 좋는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저희 준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저희가 지금 과학 담당하는 기자가 사실은 3명인데요. 거의 다 기상 기자들이에요. 근데 과학도 같이 하는 형편이어서요. 아직까지 과학 분야를 저희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과학 기사를 충원해서 충실하게 과학 기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10월7일, 올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얼마나 퍼졌기에 의심하면 '딱', 최근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이 급증하고,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사범 적발 보도 역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추가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마약 반입 및 유통에 대한 사전적인 단속 및 마약중독 예방,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해당 보도 역시 마약사범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다수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들에 대해 각종 마약성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코카인, 엑스터시, 필로폰, 몰핀, 대마) 이름이 노출되고, 마약을 투약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와 적발되었던 마약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8월까지만 1만 3000명에 육박하여 역대 최다를 넘어섰다', '10대 마약사범이 8월까지 지난해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의 보도와 함께 그 증가원인으로 SNS와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마약거래가 텔레그램을 통해 70%이상이 확산되고 있다,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SNS 채팅 화면 등을 비추는데 해당 내용에는 '대마초, 아이스캔디 판매, 마약의 거래 가격으로 추정되는 숫자,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가능' 등의 문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은 마약사범의 급증을 우려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취지에는 매우 공감합니다만, 일부 시청자들이나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해당 보도를 통해 마약의 종류나 방법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 구매 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모방 범죄 등의 우려가 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마약 구입 경로를 노출시킨 자료 화면을 최소화하거나,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 또는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도의 취지에도 더욱 적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마약 관련 보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사회부의 사건 리포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보도를 하는 건데 뜻하지 않게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표현이라든가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이 모방 심리를 불러일으키는지 사실은 이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하기 때문이에요. 범죄 수법이라든가 범죄 도구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날씨속 과학속' 원뿔 모양의 하얀 빛...가을에 잘 보이는 황도광, 9.23.부터 새롭게 선보인 코너로 일상 속 궁금했던 날씨와 과학 현상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황도광'이라는 생소한 현상을 우리나라에 인지도가 높은 영국의 유명 록밴드 퀸의 '레디오 가가'라는 노래를 들려주면서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가 천체 물리학자

라는 색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고, '황도광의 티끌 구름에 관한 시상속도 조사'라는 박사 학위 논문까지 썼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황도광'이라는 생소한 현상만큼이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재미난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황도광'이 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나타나는데 동 트기 전의 하늘 모습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짜 새벽'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보도 당일인 9.23. 추분 무렵이 가장 관찰하기 좋다는 설명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적절했습니다. 특히 기상과학 전문기자가 화면에 그래픽으로 '황도광'이 무엇인지, 실제 관측된 화면 등을 제시하면서 설명해주어 호기심을 더하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문가인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설명에서 연구원이 화면 전면에 노출되기보다 설명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화면을 전면 노출시키고 연구원을 오른쪽 하단에 작게 배치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으니 이후 제작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매주 보도된 추석 '보름달'(9.28), '일교차' 심혈관 질환 주의!(10.7), 현실이 된 아이언 맨 '로봇 슈트'(10.14) 모두, 시기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기상과학팀을 만들면서 새롭게 내놓은 코너입니다. '날씨속 과학속'은 일반인들한테 좀 기상과학 현상을 신선한 접근법으로 재미있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위원님이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저희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인터뷰 화면 편집 관련은 앞으로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10월 17일자 '손자 숨지게 한 강릉 급발진 사고 운전자 할머니에 혐의 없음'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를 잃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피의자가 된 안타까운 사고인지라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져 왔던 내용인데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데 대한 보도였습니다. 보도 헤드라인이나 자막에서 '손자 숨지게 한'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할머니가 숨지게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 잃은 60대 할머니, '혐의 없음'>이라던가 <"할머니는 죄가 없다" 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등 '손자 잃은'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는 달라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거론되는 자막오타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겠지만 적절한 표현이 사용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리포트 제목이 사실은 리포트 내용하고는 모순될 수도 있는 제목인데 이게 어떻게 데스크까지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저희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늦게라도 수정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연합뉴스TV 스페셜] 296회: 독립운동가 운암, 특별한 템플스테이(10.1), 운암 김성숙 선생은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봉선사의 승려(법명 : 태허스님)였고, 불교계 출신 인사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가 운암 김성숙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54주년이 됩니다. 지난 4월에 54기 추모제가 국립현충원에서 열렸고, 연합뉴스TV에서 당시 이를 보도했고, 8월에는 '운암 김성숙 학술심포지엄' 개최 관련 뉴스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운암 선생님과 그의 중국인 부인 두쥘웨이(杜君惠)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 '우단사련'이 연재를 했고, 이 분에 대한 UCC 공모전이나 학술 심포지엄을 비롯해 현충재 등 다양한 행사가 꾸준하고 왕성하게 열린걸 보면 올해는 운암 선생님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 연합뉴스TV에서 운암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한 것은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도 단순히 인물 일대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종교와 상관없이 전국에 각계각층에서 모인 100명의 탐방단이 봉선사를 중심으로 현장 탐방 행사를 진행했던 '운암로드 탐방'을 밀착 취재해 탐방단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생한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를 순차적이면서 교차적으로 보여줘 콘텐츠의 색다름을 느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연합뉴스TV의 방송을 시청하신 후 독립운동가에 대한 후원을 결심하면서 실제로 후원을 하셨다는 소식을 모 언론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의 이번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집중 조명 혹은 재조명을 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교훈을 전달하는데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작진 및 취재진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연합뉴스TV가 공영 보도전문 방송사로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좋은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많이 선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스페셜 제작한 해당부서에서는 불교 방송 등에서 이미 한 번씩 다루고 했던 주제여서 조금 다른 방식,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웠다. 그런 애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하여튼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영애 씨가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후원을 했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실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손영준 위원장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시청자위원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